

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3.1.31일(화) 오전 11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등 10인

회사 참석 인원 : 사장, 전무이사,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시청자센터부장

1. 다음 회의 일정

- 2월 일정 : 2월 23일(목) 오후 3시

2. 주요 회의 내용

▲ 문승재 시청자센터장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시청자센터장 문승재입니다. 방송법 제87조 종합 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저희 연합뉴스TV 시청자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된 시청자 위원님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연합뉴스TV 임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성기홍 사장님이십니다. 고승일 전무이사님이십니다. 추승호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이십니다. 먼저 오늘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청자위원 위촉장 수여가 있을 예정이고요 연합뉴스TV 성기홍 사장의 인사말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7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시청자 평가원 선임 이후에 3층 저희 스튜디오를 잠깐 둘러보시고 지하 1층에서 오찬을 하시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기 시청자위원 위촉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냥 위촉장 받을 때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촉장 수여식 진행)

▲ 연합뉴스TV 제7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

- 연합뉴스TV는 시청자위원 10인에게 제7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함.

▲ 문승재 시청자센터장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2023년 1월 정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기홍 사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성기홍 사장

이렇게 새롭게 우리 시청자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는 2011년도에 첫 전파를 타고 난 이후에 올해 13년차로 접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뉴스 보도채널 시장 속에서 저희보다 먼저 선발 주자로 출발했던 YTN에 비하면 그 업력이라고 하는 게 한 이십 년 가까이 뒤쳐진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YTN은 1995년 그 무렵에 출발했던 보도 채널이고 저희들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선발 주자인 경쟁 보도 채널과 함께 경쟁에서 어느 정도 미디어 시장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유의미한 어떤 발신력을 가진 미디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경쟁 보도채널들에 비해서 많지 않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개국 한지 5년, 저희들은 2016년도에 연평균 시청률에서 YTN을 따라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YTN에 비해서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미디어 공론화 현장에서 유의미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라는 영역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를 하곤 하지만,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독자들, 시청자들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고 있고 그것이 어떤 피드백을 받는가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연합뉴스TV 보도가 다시 한 번 성찰하면서 보도 방향을 잡아나가고 또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저희 연합뉴스TV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위원들께서 여러 분야 다양한 각계 대표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것들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은 각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일반 보편 타당한 상식을 지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로서 우리 연합뉴스TV에 여러 보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우리 연합뉴스TV의 보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단지 시청률의 성장만이 아니라 건강한 콘텐츠로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실 때마다 여기 방금 소개해 드렸던 추승호 보도본부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시청자 위원님들의 견해를 직접 경청하고 할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 보도국의 콘텐츠에도 수용할 것 수용해내고 이러면서 많은 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께서 흔쾌히 우리 연합뉴스TV의 시청자 위원으로 수락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 다양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상견례

연합뉴스TV 성기홍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시청자센터부장은 시청자위원회 손영준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허인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편집국장, 서신석 전국학교운영위원 연합회 사무총장, 강건기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진한수 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 안성희 선진노무법인 부대표, 이상현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실장, 이성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실 과장 등 10인은 상호 첫 인사를 나눔.

▲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 위원들의 후보 추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방통위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 및 관련규정(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의거 '손영준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들은 함께 연합뉴스TV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연합뉴스TV와 방송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함.

▲ 시청자평가원 선임 안건

- 시청자위원회는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프로그램(바로보는TV 옴부즈맨)에 현재 시청자평가원 1명이 공석중이며, 또한 출연중인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임기만료에 따른 평가원 선임을 위해 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원 후보추천위로부터 후보자 이동준, 안지연을 추천 받음
-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문성, 경력 등 검토와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관련법(방송법 제88조) 및 규정(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시청자평가원 운영규정)에 따라 이동준, 안지연후보를 시청자평가원으로 2명 모두를 선임함

▲ 정례회의 일정

- 정례회의의 날짜는 시청의견을 나누기 위해 위원들의 일정을 감안하여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3시로 확정함.
- 다음 회의는 마지막주 목요일이 2월 23일 오후 3시 연합뉴스빌딩 1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1~2월의 시청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 스튜디오 견학 및 오찬 실시